

2015년 1월 후원금 사용 보고서

1. 2015년 1월 후원금 개요

2015년 1월 후원금은 총 3,880,000원으로 후원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10개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.

구분	단체명	1월 총 후원금
아동	상록보육원	925,000원
환경	푸른아시아	790,000원
질병	한국소아암재단	500,000원
노인	행복창조	465,000원
저소득지역	꿈이있는푸른학교	200,000원
	흑석지역아동센터	200,000원
교육	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	200,000원
	아름다운학교	200,000원
여성	낙태반대연합(Pro-Life)	200,000원
장애	안산평화의집	200,000원

2. 신규후원기관 “안산평화의집”

사회에서 소외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 관련 시설 “안산평화의집”이 새로운 협약 시설로 클로버가든에서 모임을 시작 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.

3. 안산평화의집 사랑의 쌀 전달 행사(2월 13일)

2015년 설을 맞이하여 안산평화의집에 사랑의 쌀 100kg가 전달되었습니다. 행사에는 서용상 차장님 외 3분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셔서, 쌀 전달식 뿐만 아니라 오전 동안 생활관 전체 청소를 해주셨습니다. 기부해 주신 소중한 쌀은 안산평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50명의 중식 지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.



안산평화의집은 1983년 설립되어 소외 당하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(주거공간, 재활치료)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안정된 정서와 건강한 몸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,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계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시설 내 만연니 은숙씨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숙씨는 평생을 누워지내고 있습니다. 안산평화의집은 이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는 곳입니다.

안산평화의집에서 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,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



안산평화의집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'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'로 가족과 사회에 버림받아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,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버거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환영해주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안산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산평화의집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장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.

후원자 명단

릭실코리아 (이성철)



대학교 4학년 커플이 혼전 임신하여,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지우려고 시도하였으나 두 사람의 강한 출산 의지로 본 기관에서 함께 상담을 받고 출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 후 양가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으로 이어져 1월 24일(토)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

경제적인 수입이 전혀 없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부부에게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아기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.

전기이월금		0 원	
1월 총 후원금		200,000 원	
후원금 모집활동비*		13,475 원	
당월 사용금액	출산지원금	186,525 원	
	(출산준비비,건강검진비, 외래진료비 등)		
차기이월금		0 원	

* 카탈로그 제작/인쇄 및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

후원자 명단

릭실코리아 (이성철) 대일산업(주) (김새미 김시찬 김종석 김종구 문성민)

